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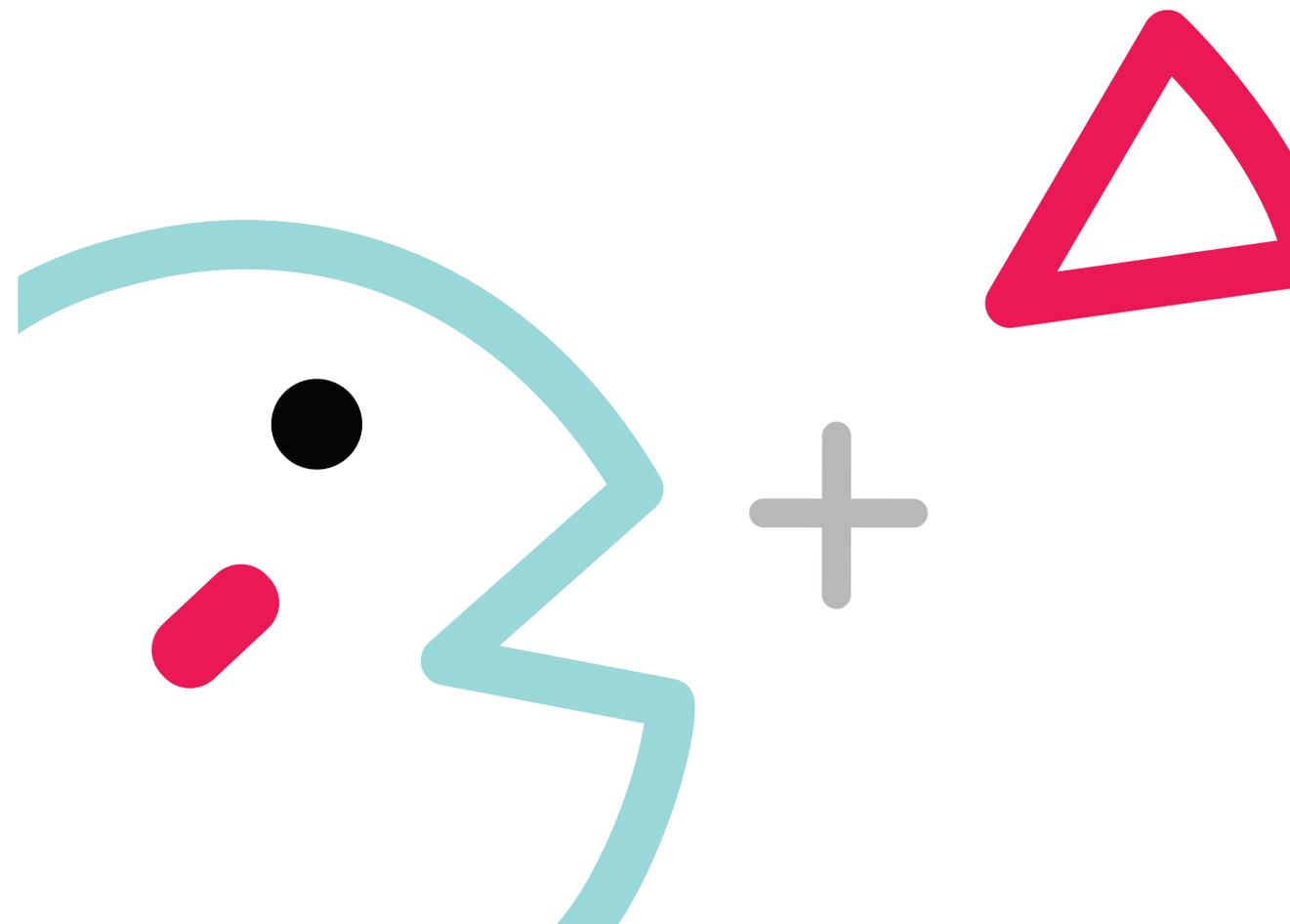
2017 프로보노 가이드북
NPO로 간 굿프로 이야기



2017 프로보노 가이드북 NPO로 간 굿프로 이야기

CONTENTS

| | | |
|--------------------------|----|----------------------------------|
| 1. 시작하며 | 05 | 프로보노가 NPO의 성장을 돕습니다 |
| 2. 프로보노 길라잡이 | 08 | 프로보노는 |
| | 09 | 프로보노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
| 3. 퀘지나칭칭 프로젝트 자세히보기 | 12 | 퀘지나칭칭 프로젝트를 하는 진짜 이유 |
| | 15 | 퀘지나칭칭 프로젝트 매력탐구 |
| | 17 | 알쓸신래 NPO 편 |
| | 23 | 알쓸신래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편 |
| | 29 | 알쓸신래 기업파트너 편 |
| | 35 | 알쓸신래 중간지원조직 편 |
| 4. 한 눈에 보는 퀘지나칭칭 프로젝트 | 40 | 퀘지나칭칭 프로젝트로 증명된 5가지 활동모델 |
| | 42 | 2017 퀘지나칭칭 프로젝트 사례 |
| 5. 프로보노를 돌아보다 | 50 | 국내외 프로보노 동향과 한국의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 54 | 해외 우수 사례 |
| | 56 | 2017 프로보노 센서스 |
| 6. 함께 한 분들 | 60 | NPO 및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파트너 |



01

시작하며

- 프로보노가 NPO의 성장을 돕습니다
-



프로보노가 NPO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순동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이사장

2017년 프로보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민간영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자원봉사 관련 교육·연구·캠페인·기업컨설팅·정부정책 제안을 진행해 온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자원봉사전문기관으로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 하고 참여를 지원하여 일상의 자원봉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육, 노동, 여성, 장애, 빈곤, 환경 등 이미 존재했던 사회적 과제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변화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와 국가재정의 위기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난제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정부, 기업, NPO 등이 각각의 전문성으로 협업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치만도 1만3,464개에 다다릅니다. 또한 지난 6년간 6%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점차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한국 NPO 들의 현장의 역량과 과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3년간 NPO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를 연계, 매칭하는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프로보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얻은 현장의 노하우는 매우 값지고 귀중하기에, 올해에는 기존의 사례집 형태를 벗어나 <프로보노 가이드북> 형식으로 구성하여 프로보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중간지원조직, NPO,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지면을 빌어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프로보노의 긍정적인 파급력에 공감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협력과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2

프로보노 길라잡이

- 프로보노는
 - 프로보노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



프로보노는

프로보노는 직업을 통해 익힌 전문가의 기술과 지식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여 결과와 성과를 내는 자원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프로보노는 라틴어인 '프로보노 퍼블리코(Pro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라는 말의 약어로 '공익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주로 전문가가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공익활동을 위한 경영, 교육, 마케팅, 의료, 예술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활동 방식도 단지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서 비영리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keyword로 알아보는 프로보노

| | |
|-----------|---|
| #사회 문제 해결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인 NPO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 #직업적 전문성 | 직업을 통해 익힌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 #조직 역량 강화 | NPO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기반을 강화합니다 |

프로보노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프로보노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NPO**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자**, 그 사이에서 중재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성공적인 프로보노 서비스가 되도록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NPO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 홍보, 모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모든 역량을 갖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NPO에게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NPO는 필요로 하는 전문 역량을 자원봉사자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통해 NPO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으로 변하는 나비효과처럼 내가 직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NPO를 성장시킨다면 작은 힘으로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나비효과'가 아닐까요?



| NPO |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 중간지원조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로 인한 재정난 • 전문 인력 구성의 한계 • 업무 과부하 • 합리적 경영의 어려움 • 사회변화에 대한 목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 자기성장의 기회 • 차별화된 사회공헌 • 사회적 가치 높이기 • 일에 대한 인사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의 기반 강화 • 새로운 자원봉사 참여 문화 • 시민사회와 자원봉사를 잇는 플랫폼 |



03

퀘지나칭칭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 퀘지나칭칭 프로젝트를 하는 진짜 이유
 - 퀘지나칭칭 프로젝트 매력탐구
 - 알/쓸/신/래 [NPO 편]
 - 알/쓸/신/래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편]
 - 알/쓸/신/래 [기업파트너 편]
 - 알/쓸/신/래 [중간지원조직 편]
-

(사)한국자원봉사문화가 래지나칭칭 프로젝트를 하는 진짜 이유



래지나칭칭 프로젝트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NPO(비영리단체)와 매칭되어 코칭(자문), 티칭(교육) 해 줌으로써 조직 역량이 쑥쑥 강화되어 신나게 '래지나~칭칭 나네~'를 부르도록 만드는 (사)한국자원봉사문화의 **프로보노 사업**입니다.

(사)한국자원봉사문화가 프로보노 사업의 일환인 “래지나칭칭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 즉 살기 좋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NP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기 좋은 사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동반성장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NPO는 시민의 성장을 촉진하기에 NPO의 기반 강화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원봉사 참여 동향을 살펴보면, 성인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은 지난 10년간 21~22% 대로 ‘역대 최장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민성의 기반이 많이 약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라는 물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NPO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NPO가 '물고기를 잡는 힘을 키워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회변화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NPO의 강화는 이들의 문제 해결력은 물론, 향후 만들어낼 사회 변화의 크기도 키우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NPO는 자신이 활동하는 사회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계획, 조직경영, 홍보, 모금, IT, 법률, 재무 분야 등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그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한국자원봉사문화가 펼치는 프로보노 사업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즉, NPO가 지향하는 바는 존중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제공하여 NPO가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사회적 목소리를 퍼뜨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한국자원봉사문화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NPO는 자원봉사를 통해 활동을 추동합니다. NPO에게 자원봉사는 귀중한 파트너인

동시에 다양한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단순 노력봉사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각색의 모습으로 자원봉사는 NPO 현장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프로보노는 전문봉사의 한 유형이면서 NPO 그 자체에 “직업적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조직의 존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NPO에게 프로보노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래지나칭칭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올해로 3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 시작할 때에 비하면 많은 자원봉사자와 NPO 기관이 참여해 주셨고 함께 사회변화를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나 프로보노는 여전히 우리에게 인지도가 낮고 어색한 단어입니다. 이에 (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3년간의 프로보노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NPO는 물론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잠재적 자원봉사자에게 더 많은 참여의 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 이벤트, 선진 모범사례 등을 만들어 널리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떤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NPO가 처한 문제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방향성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업, 자원봉사활동 모임, 전문가 집단 등)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은퇴 후라도 직업적 전문기술과 지식이 확고하다면 누구든 NPO와 매칭 되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래지나칭칭 프로젝트'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직 CEO**
NPO의 운영진(이사) 활동
- 세무사**
세무처리 방법 및 내용 지도
- 변호사**
정관, 규정, 관련법 등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 자문
- 모금 전문가**
모금 전략 분석 및 자문
- 웹디자이너**
홈페이지 및 디자인 자문
- 홍보 전문가**
매체별 홍보 전략 자문



어떤 분야가 있을까?

| 경영 | 경영전략 | 조직운영 | 법률 | 사업기획 |
|----|------------------------------|------------------------------------|----------------------------------|-------------------------------|
| | 기관 미션·비전 수립 사업별 전략과제 도출 등 | 인사 관리 조직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원봉사 관리 등 | 기관 법률 상담 인사규정 수립 정관 수립 등 | 전략사업 기획 컨설팅 등 |
| 홍보 | 기관홍보전략 | 사업마케팅전략 | 모금전략 | 디자인 |
| | 기관 홍보 방안 수립 기관 브랜딩 작업 등 | 사업 마케팅 방안 수립 제안서 작성법 등 | 거액 모금 전략 소액 모금 전략 후원자 관리 등 | 기관 홍보자료 사업 홍보문 등 디자인 자문 |
| 재무 | 재무전략 | 회계전략 | IT | 컴퓨터활용법 |
| | 재무 관리 재무 역량 강화 등 | 회계 관리 상담 등 | 컴퓨터활용법 | 홈페이지 구축전략 |
| | | | 파워포인트 스킬 교육 엑셀 사용법 교육 등 | 홈페이지 개발, 보수 등 |

래지나칭칭 프로젝트 매력탐구

NPO

-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기관의 문제를 꼭 짚어 해법을 제시하는 가이드입니다
- 조직을 살찌운다!** 조직의 성장을 높이는 전문성을 연계합니다
- 영리와 교류한다!** 전문직 종사자와 기업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새로운 영역으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넓히는 경험을 줍니다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 배워서 남 주는 프로보노!** 업무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회공헌이 됩니다
- 다양한 경험으로 깊어지는 능력!**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 나를 개방하여 관계를 만든다!** 비영리 및 다양한 분야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열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적인 시민이 됩니다



기업 파트너

- 임직원의 전문성 개발** 임직원의 전문 기술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됩니다
- 임직원의 만족도 제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증대되며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 활발한 일터** 부서간의 소통이 증가하게 되고, 외부와 협업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 브랜드 이미지 개선**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은 물론 효과적인 PR 효과가 있습니다
- 다양한 네트워크** 잠재적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도 창출됩니다
- 혁신적인 조직문화에 기여** 임직원의 창의성과 책임감이 자극됩니다
-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의 시대** 가장 '기업 다운 사회공헌'을 실현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래지나칭칭
프로젝트

◆ NPO편 ◆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실제 NPO가 말하는 생생 고민!
이럴 땐 정말 '프로보노'가 필요해요

일관성 없는
사업 진행,
힘들고 지쳐요

정체성 없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

SNS, 홈페이지 등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반응이 없죠?

홀로 외쳐대는
나 홀로 홍보

NPO에게 중요한 모금!
그러나 후원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존속을 위협하는
후원 관리

십 년도 넘은 홈페이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보기 싫은 홈페이지

궁금해요 ~ Talk & Talk

아무래도 우리 기관의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상황이 어떤데?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냐고. 모금도 꾸준히 줄고 있고 말야.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는데... 아~ 기운빠져~

과연 홍보만의 문제일까?

홍보가 잘 안 되니까 모금도 줄고 사업 참여자도 적은 거 아닐까?

기관의 경영전략은 검토해봤어?

경영전략? 너무 뜬금없는 소리 아니야?

홍보방법이 문제일수도 있지만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인 명분과 목적이 명확한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

그런가? 하긴.. 때마다 느끼지만 방향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럼,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진행하는 '레지나칭칭 프로젝트' 사업에 신청해봐. 전문가 자원봉사자가 자문을 해주는데... 완전 고민해결! 너랑 비슷한 고민으로 자문을 신청했는데, 홍보만의 문제가 아닌 기관 경영전략의 문제였더라고

고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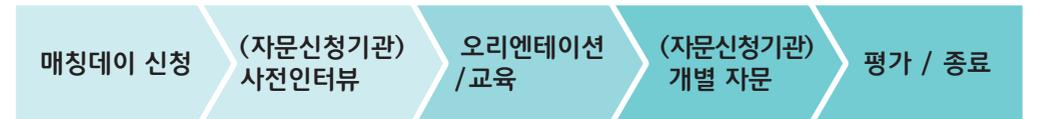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프로보노를 만나봐~

단순히 홍보가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의외로 사전인터뷰나 첫 미팅을 하다 보면 홍보라는 하나의 영역 문제가 아닌 비전·미션 체계와 같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홍보는 '기관홍보전략' 부터 '사업마케팅 전략', '모금전략', '디자인' 등 종류도 다양하다는 사실! 단순히 보이지만 복합적인 조직의 문제들, 프로보노 사업이 진단과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장기간 시간내기 힘들 때 활용하기 좋은 매칭데이 / 단기자문

특화된 분야의 전문교육과 우리 기관만의 고민을 짧은 시간 동안 1:1로 자문 받습니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정리된 솔루션을 제공 받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특히 자문받기 전 코디네이터와의 사전 인터뷰는 불명확한 NPO의 욕구를 더욱 명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 장기자문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투여로 NPO가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 사항을 함께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인터뷰와 첫 미팅은 NPO의 니즈를 확실히 파악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 코디네이터의 모니터링을 받으며 안정적이고도 충실한 프로보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보노 자문 전 NPO가 알아두면 좋을 Tip

- 프로보노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파트너로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는 만능해결사가 아닌 함께 고민해 나가는 파트너임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 자문요청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욕구를 구체화,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 기관 문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오픈과 적극적인 참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 첫 미팅 시에는 가능한 대표자(혹은 임원)와 담당 실무자가 함께 참석합니다
- 첫 미팅에서 나눈 이야기에 대하여 반드시 NPO 직원 간 내부 공유를 합니다
-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활동목표, 범위, 기간, 성과산출 등을 합의하여 진행합니다
- 우선순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프로보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관은 상근 실무자가 3인 이상 있는가?
- 기관은 자문 받은 것에 대해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가?
- 기관의 대표자는 프로보노 사업 참여에 동의하였거나 함께할 수 있는가?
- 기관은 충분한 내부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였는가?
- 기관은 프로보노 자문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
- 기관은 프로보노 자문을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기관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 투입이 가능한가?
- 기관이 희망하는 것은 문제해결이 매우 시급한 것인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프로보노 자문으로는 오히려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기관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활동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기관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를 만능해결사가 아닌 함께 고민해 나가는 파트너로 이해하고 있는가?

2017년 참여 NPO의 한마디

자문시작 전에 사전 미팅을 통해 단체에 대한 이해, 자문이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등을 진행한 것이 도움되었다. 운영기관의 코디네이터 역할도 잘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자원봉사자가 본회가 원하는 바를 잘 포착하고 사전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대면 자문 전에 메일로 전달해주어서 좋았다. 자문을 통해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업무에 대한 기본 원리와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각 조세, 4대 보험 관련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자문 참가자)

단체의 필요사항을 잘 반영한 적절한 자원봉사자 매칭과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자문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자원봉사자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장기자문 참가자)

편안한 분위기로 리드 해주시고 만나는 동안 실질적인 피드백들을 통해 실무자로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어 곧바로 적용하며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청소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아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어 앞으로 진행하는 업무에 희망이 보여 아주 만족스러웠다 (장기자문 참가자)

교육과 바로 이어 자문이 진행되어 상호보완을 이룬 점이 좋았다. 자문은 1:1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내용을 솔직히 오픈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홍보아카데미 참가자)

PPT와 '쌈' 했었는데, 이제는 '쌈' 탈 것 같다 (PPT 교육 참가자)

객관적 입장에서 센터의 비전을 바라보고 진행해주었다. 퍼실리테이터분들이 너무도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해주셔서 직원들도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참여했다 (비전워크숍 참가자)

피벗테이블 강의가 유익했다. 단축키 활용팁도 실무에 유용할 것 같다. 책으로는 활용이 애매한 실용적인 팁이 많아서 만족스럽고 작업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 (엑셀 교육 참가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과 덧붙여 자문을 해주신 방식이 적절했다. 새로운 리플렛을 제작하고 2018년 소식지를 기획하는데 자문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 (A/S데이 그룹자문 참가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 신비한 래지나칭칭 ◆
프로젝트+

◆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편 ◆

나의 전문성으로
사회에 울림을 만든다!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는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는 없지만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NPO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전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NPO의 문제해결만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NPO의 활약 기반을 만드는 일이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왜 프로보노 자원봉사를 하는가?

1st. 기술과 경험 활용

2nd.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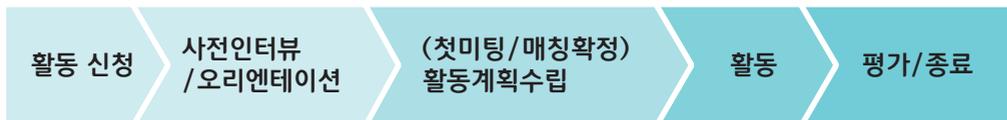
3rd. 자기 성장

프로보노 자원봉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여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막상 시작하면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지 걱정되신다고요? 알기 쉽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매칭데이 · 단기자문 · 장기자문



전문성만으로는 성공적인 프로보노 자원봉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NPO 조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프로보노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단계부터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관과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래지나칭칭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NPO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과정 후 전문 코디네이터와 1:1매칭이 성사 되고 NPO에 대한 상세정보와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래지나칭칭 프로젝트중 장기활동의 특징은 반드시 '사전미팅'((사)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는 '첫미팅'이라 부릅니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본 매칭에 앞서 NPO의 욕구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이 최적으로 일치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NPO의 욕구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이 일치하게 되면 매칭이 성사 되며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는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NPO와 공유하며 마무리 합니다

프로보노 자원봉사에 대한 궁금증 Best 4



활동을 시작하면 얼마의 기간 동안 진행 하나요?

최소 1회 활동부터 최대 6개월까지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활동기간을 가집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 전후로 진행됩니다. 활동기간은 NPO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양측의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1회 활동 시 몇 시간 정도 소요 되나요? 활동을 준비 하는 시간도 자원봉사에 포함되나요?

1회당 평균 2시간 소요됩니다. 또한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도 자원봉사 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2회 이상 장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상황에 따라 1회 단기활동부터 2회 이상 장기활동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NPO의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문제에 대한 방향 제시부터 직접적인 문제 해결까지 그 욕구와 방법은 실로 다양합니다. 간단한 문제라면 직접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컨설팅이나 자문, 역량강화 교육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활동은 사전 계획 단계에서 NPO 또는 (사)한국자원봉사문화와 협의하여 활동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프로보노 자원봉사 활동은?

| | |
|---|--|
| 기획·경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매모호한 NPO의 비전·미션체계를 점검하고 재수립을 지원합니다 • 기관 특성을 살린 사업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돕습니다 |
| 홍보·마케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딩 / 홍보전략 / 마케팅 전략을 함께 도출합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제안서 작성법을 지원합니다 • 언론기관에 통하는 언론보도문을 작성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 모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액모금 전략수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소액모금 전략수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 후원자관리 전략수립 및 점검을 도울 수 있습니다 |
| I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기획을 지원합니다 •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 기술을 자문합니다 • 파워포인트/엑셀 등 NPO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
|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 인사규정 수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관련 문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
| 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진행합니다 • 비영리 세무(기부금, 법인세신고 등)를 지원합니다 |

성공적인 프로보노 활동을 위해 프로보노 자원봉사자가 알아두면 좋을 Tip

- NPO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 NPO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유연한 대화를 형성합니다
- 시간 약속을 지킵니다
- “꼭 해내겠다” 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합니다
- NPO의 사업 규모를 고려해가며 활동을 진행합니다
- 서두르지 않으며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합니다
- NPO에 대해 평가자의 태도가 아닌 “안내자, 조력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2017년 참여 봉사자의 한마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와 산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케팅회사, 40대 여성)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공감을 형성하여 NPO들과 잘 소통하는 훌륭한 장을 만들어 주신 점에 매우 감사하다. 많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들이 각자의 동기가 있겠지만 희망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기부한 재능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것을 느끼는 것. 정말 도움이 필요한 NPO들이 도움을 받고 이를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 부탁드린다 (전자회사, 30대 남성)

퀘지나칭칭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나눔의 미덕과 올바른 지식의 공유를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덤벼주는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코디네이터의 노고에 의해 본 프로젝트가 좀 더 빛났다 (前 음료회사, 60대 남성)

짧았지만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이번 경험이 참여하신 NPO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식과 경험은 공유할수록 배가 된다고 믿는다 (재능기부 단체, 50대 여성)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전문지식을 요하는 NPO 등을 중간에서 연계하는 이러한 프로보노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되어 조금이나마 투명한 NPO를 만들고,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NPO들이 자신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으면 좋겠다 (회계법인, 40대 남성)



◆ 기업파트너 편 ◆

NPO와 기업의 동반성장

직업인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프로보노와 같이 사회공헌을 하면서도 일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사이트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능력을 살린 '사회 참여 기회'는 더더욱 귀한 기회입니다

기업이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 중에 프로보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로보노가 기업의 사회공헌 없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민하는 NPO, 응답하는 기업 파트너

우리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점차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NPO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되어 집니다. 그러나 NPO에게는 활동적 제약이 많습니다. 환경, 교육, 복지 등 해결하고 있는 사회문제 영역에서만큼은 프로이지만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과 인프라로 인해 기관 운영을 위한 홍보, 마케팅, 회계 등 전문 영역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정책이나 기업의 단순한 자원 투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기업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적 도움과 참여가 모여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프로보노 자원봉사 참여는 NPO의 부족한 틈을 메워줄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특수 전문성과 기술성,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대·내외적 파트너십은 NPO의 역량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회적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복잡해져가는 사회문제에 덩달아 복잡해지는 NPO의 고민, 기업의 프로보노 자원봉사 참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열쇠'입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업의 프로보노는 해당 기업의 어느 부서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방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프로보노의 연계에 따라 만들어갈 사회적 가치 + 기업 가치도 결정됩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분야 중에 프로보노를 부각시켜 더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넓혀간다면 기업이 성취할 수 있는 성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혁신

혁신적 조직 문화

- 임직원의 창의성, 생산성, 책임감 자극
- 새로운 사고방식과 기업가적 문화 조성

HR

전문성 계발

- 임직원이 직무 현장에서 활용하는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훈련의 기회
-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거나 직무 전환, 또는 은퇴 준비 시 도움
- 임직원의 성과 측정의 기회 증가 및 우수한 임직원의 승진 기회 제공

채용방식의 개선

- 구직자의 기업 매력도 향상
- 프로보노시 접촉한 이해관계자의 기업 인지도 제고

임직원의 만족도 제고

- 임직원 스스로의 역량 및 소속기업에 대한 자부심 증대
- 기업문화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및 충성심 고취
- 임직원의 동기부여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이직률 감소

활발한 일터

- 전사적 부서간의 소통 촉진
- 팀워크와 협업 능력 향상
- 임직원과 인사담당자와의 관계 개선
- 임직원은 조직 내에서 광범위한 가시성 확보

평판

브랜드 이미지, 홍보효과 개선

- 브랜드 인지도 향상
- 긍정적 인식 강화
- 최소한의 홍보비용으로 효과적인 PR

돈독한 관계와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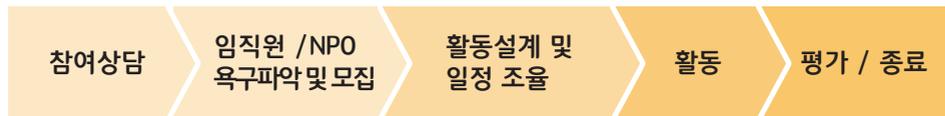
-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비거래성) 관계 강화
- 기업의 전문성에 대한 가시성 강화
- 사업 개발의 기회 창출

경영 지속

- 대중의 비난이나 정부의 부정적인 결정과 같은 위험노출의 기회 감소
- 논란이나 부정적 PR의 기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지지 확보

출처 : 2015 SESNE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taproot foundation 「Powering Probono」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기업의 업종 특성에 맞는 활동분야를 선정합니다. 또한 활동 시간, 횟수, 인원 수 등 기업 내 프로보노 활동 환경을 조사하고 담당자와 논의하여 맞춤형 활동을 설계합니다. 모집 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등을 시행하고, 활동 내용을 조절한 후 본격적인 프로보노 자원봉사에 임합니다.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임직원 및 수혜기관의 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여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은 물론,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 프로보노 성공사례

국내 SK 프로보노 봉사단

2009년 9월, 대기업 최초로 'SK 프로보노 봉사단'이 출범되었다. SK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의 조직 역량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해당 조직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스스로 생존하는 수익 구조를 갖춰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SK 프로보노 봉사단은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 및 NGO, NPO와 같은 공익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법무, 재무·회계, 무역, IR, 디자인, 외국어, 사진, 요리 등 관련 기업 및 단체 활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 구성에 따라 1명의 프로보노가 1곳의 조직에 매칭되어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 활동과 여러 명의 프로보노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1곳 또는 그 이상의 조직에 자문을 제공하는 그룹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참여 형태에 따라 조직의 CI나 BI 디자인 개발처럼 프로보노가 직접 조직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문제해결형 프로보노, 이미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여 조직이 직접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코칭형 프로보노, 조직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형 프로보노, 워크숍을 구성하고 진행하며 조직의 전 구성원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워크숍형 프로보노처럼 다양한 방식의 프로보노가 진행된다

SK그룹의 이러한 사회공헌 방식은 일시적이거나 시혜적이지 않은 접근이며, 기업의 메커니즘과 경영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SK프로보노 C&C 블로그 (<http://skccblog.tistory.com/1938>)

해외 IBM

IBM은 축적된 IT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 IBM의 프로보노 자원봉사단인 'IBM 글로벌 기업 봉사단(Corporate Service Corps)'은 미국의 사회공헌 트렌드에 걸맞춰 2008년 발족되었다. 매년 500명의 임직원을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환경, 질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IT기술과 지혜를 동원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령 파나마의 말라리아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모기 퇴치 프로젝트에서, IBM의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들은 모기 퇴치를 위한 직접적인 연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모기와 모기유충의 분포 지역을 조사하는 데에 그들의 IT 지식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소아암 치료법 개발을 위한 실험 기간 단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특정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IT적 접근의 프로보노로 사회 과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IBM 글로벌 기업 봉사단은 전 세계 3,000명의 임직원이 275개의 팀으로 뭉쳐 약 40여개 국가에 투입되어 약 1,00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탭룻재단의 가치측정치표로 환산했을 때 약 70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로 측정되었다

출처 : IBM Corporate Service Corps (<https://www.ibm.com/ibm/responsibility/corporateservicecorps/>)

알아두면 쓸데있는
◆ 신비한 래지나칭칭 ◆
프로젝트◆

◆ 중간지원조직 편 ◆

프로보노라는 보석을 키우는 일

영리를 추구하는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와 비영리적 영역의 NPO,
서로 다른 양쪽이 만나는 프로보노!
일방적인 도움 관계 같지만 사실상 서로에게 필요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프로보노 자원봉사를 꿈꾸는 직업인과 문제해결을 원하는 NPO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프로보노 "시스템" 에 있습니다



매칭부터 활동, 평가까지 성공적인 프로보노 프로젝트 운영하기

첫째, NPO needs 가 먼저다!

프로보노 활동 설계 전 NPO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프로보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란 물음에 대한 답이다.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NPO의 needs 파악을 위해...

- 욕구 설문 조사
- 기존 통계 활용
- NPO 인터뷰

둘째,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전문 역량 확인하기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해당 프로보노 사업에 가용될 수 있는 전문성인지 따져봐야 한다

유명 IT업계에서 종사한지 4년째 되는 A씨. 평소 사회공헌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그간 해온 직업에 대한 확신도 갖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보노를 알게 되었고 한 NPO를 소개받아 첫 미팅 차 방문하였는데...

이런! 같은 IT자문이라도 NPO 특정 문제와 A씨의 전문 분야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헛걸음 하고 돌아가는 예비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마음과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 NPO의 마음은 '참 씁~쓸 하구만!' 실망한 A씨는 한동안 자원봉사 하려는 마음이 도통 생기질 않았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전문분야와 기술력의 확인이 부족했군요! IT도 다양한 세부 분야로 그 전문성이 나뉘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전문역량 파악하기

- 전문 역량을 보유한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유한 skill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해당 분야의 경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프로보노 사업의 성공조건, 코디네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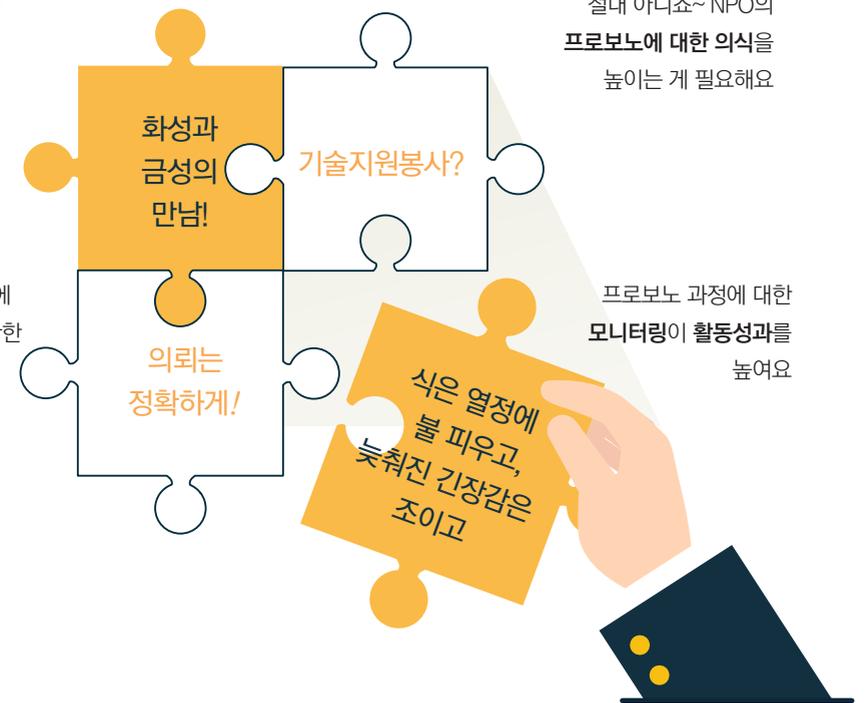
준비된 전문 자원봉사자와 NPO가 있다고 단번에 성공? No No ~ 프로젝트를 관리할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완성이 되지요 ~

영리와 비영리의 특성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요

절대 아니죠~ NPO의 프로보노에 대한 의식이 높이는 게 필요해요

NPO의 잠재적 문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확한 의뢰를 해요

프로보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활동성과를 높여요



성공적인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행하고 적시에 완료할 것
- 제공한 결과물이 실행 가능한 것이고 지속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것
- NPO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것
- NPO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모두 각각의 대응에 만족할 것
- 프로젝트로 인해 NPO 스스로가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 만족할 것

프로보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본구조 (출처: 탭룻 재단)

| | | | |
|---------|---------------|--|---------|
| 프로젝트 설계 | NPO 욕구 파악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첫미팅을 통한 매칭 • 매뉴얼 활용 진행관리 • 일상적 모니터링 • 긴급 지원 | 평가와 피드백 |
| |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확보 | | |

04

한 눈에 보는 래지나칭칭 프로젝트

- 래지나칭칭 프로젝트로 증명된 5가지 활동모델
 - 2017 래지나칭칭 프로젝트 사례
-



캐지나칭칭 프로젝트로 증명된 5가지 활동모델



장기자문

NPO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가 1:1 또는 1:多로 매칭되어 **일정기간(장기간)**,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NPO조직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컨설팅, 워크숍,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기자문

NPO가 공통적으로 겪는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1day, 1회적**으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는 매칭 방식입니다



그룹자문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 NPO와 프로보노 자원봉사자가 **多:1**로 매칭되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는 매칭 방식입니다



교육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NPO를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실시하는 매칭 방식입니다



기업 맞춤형

각 기업의 **업종 특성**이나 주력 사업,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보노 활동을 맞춤 기획하여 NPO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형 매칭 방식입니다



2017 캐지나칭칭 프로젝트 사례

한 해 동안 NPO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5가지 프로보노 활동 모델을 재무, IT, 모금, 경영전략 등 분야별 대표 사례로 소개합니다

1. 장기자문

생존을 위한 후원자개발

개인 / 자문 / 모금

NPO는 회원이 생명입니다. 회원들의 지속가능한 참여와 후원 확대를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때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는 소액 기부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인맥이 아닌 일반 대상 회원 확대 방법, 후원자 관리와 개발 노하우 등 모금 전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실제 모금기획과 실행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모금 경험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CASE 1

- DURATION** 2017. 8. 10 ~ 10. 30 (5회)
- NPO** (사)글로벌호프
- NEEDS** • 잠재적 후원자 관리와 개발, 모금실행력 필요
- PROBONO** 이원규 (주)공유
- IMPACT** • 후원자 관리 방법 및 모금 실행의 세부 가이드 제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비영리 세무·회계

개인·그룹 / 자문 / 회계전략

NPO는 적은 인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일 경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나 세무, 회계 분야가 그렇습니다.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는 세무회계 법률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거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코칭합니다. 작성된 매뉴얼과 시스템 정비로 세무, 회계 역량이 강화됩니다



CASE 1

- DURATION** 2017. 8. 8 ~ 10. 24 (5회)
- NPO**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NEEDS** • 개정된 세무 회계 법률 이해 및 매뉴얼 필요
- PROBONO** 신윤석 _동서회계법인
- IMPACT** • 세법과 4대 보험 이해 증진
• 업무 매뉴얼 작성

CASE 2

- DURATION** 2017. 8. 11 ~ 9. 18 (3회)
- NPO** 한국CLC
- NEEDS** • 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량 축소와 효율성 증대
- PROBONO** 박상식, 이우형 _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 IMPACT** • 사업비 결산서 항목 조정
• 경비지급품의서 및 급여대장 서식 마련
• 비영리법인 수입 및 경비 세부항목 현황표

CASE 3

- DURATION** 2017. 8. 16 ~ 9. 29 (4회)
- NPO** (사)스파크
- NEEDS** •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경리기준 수립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외부회계감사 보고·속지
- PROBONO** 강윤희, 백외섭 _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 IMPACT** •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경리
•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 의거 외부회계감사 기준 수립

보고 싶은 홈페이지 기획

개인 / 자문·교육 / 홈페이지

NPO의 홈페이지는 시민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NPO의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는 관련 실무 교육과 기술 자문,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UI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약을 위한 혁신 조직운영

개인·그룹 / 컨설팅·자문/ 경영·조직운영

많은 NPO가 기관의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는 전문적 관점과 풍부한 경험을 나누며 내외부 환경을 파악하고, 조직의 현재를 진단하여, 기관의 비전 수립과 실행 전략들을 짜는 것을 지원합니다



CASE 1

- DURATION** 2017. 9. 20 ~ 9. 25 (2회)
- NPO** 서울환경연합
- NEEDS**
 - 시대 흐름에 맞는 홈페이지 개편 욕구
 - 일반 이용자로서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조언과 전문가로서의 기술적 자문
- PROBONO** 유정오 _LG전자
- IMPACT**
 - 기관의 활동 목적을 최적화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 자문 및 정보제공

CASE 2

- DURATION** 2017. 9. 20 ~ 12. 18 (3회)
- NPO** (사)글로벌비전
- NEEDS**
 - 장애가 찾아 활용성과 홍보효과가 적었던 홈페이지를 관리도 쉽고 활용도도 높은 홈페이지로의 리뉴얼
 - 저비용 고효과를 내는 IT 정보 필요
- PROBONO** 유정오 _LG전자
- IMPACT**
 - 기관 미션을 대변하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기획 및 기술 자문 A to Z
 - 스마트기기 사용 트렌드를 반영한 반응형 웹 홈페이지 구축
 - 저비용 고효과를 내는 IT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CASE 3

- DURATION** 2017. 9. 20 ~ 진행중 (5회)
- NPO** 함께사는사람들
- NEEDS**
 - 현재 사업을 반영하는 웹사이트 개발
 - 기관에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 PROBONO** 이왕국 _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 IMPACT**
 - 실무자 기술 교육을 통한 웹사이트 추가, 변경, 관리 기능 향상
 - 기관 사업을 반영하는 홈페이지 운영

CASE 1

- DURATION** 2017. 8. 7 ~ 12. 18 (5회)
- NPO** 은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NEEDS**
 - 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기위한 미션체계(비전-미션-목표) 수립
 - 비전에 기반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프로세스 수립
- PROBONO** 김경란, 이종석 _메타노이아
- IMPACT**
 - 미션 체계를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재정비
 - 비전과 일관된 구체적 사업 전략 및 세부과제 수립

CASE 2

- DURATION** 2017. 10. 20 ~ 진행중 (7회)
- NPO** CLC희망학교
- NEEDS**
 - 기관 정체성과 방향 제고
 - 조직의 대내외 홍보를 위한 키워드 도출
- PROBONO** 김경란, 이종석 _메타노이아
- IMPACT**
 -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CLC희망학교 3개 캠퍼스가 공유할 미션체계 수립
 - 효율적인 업무방식 습득
 - 조직의 대내외 홍보 및 위상 제고 기반 마련

CASE 3

- DURATION** 2017. 8. 28 ~ 11. 20 (4회)
- NPO** 구로건강복지센터
- NEEDS**
 - 청소년 조직 운영을 위한 세부 수행 진단 및 성장 전략 방안 검토
- PROBONO** 고흥복 _광명청소년수련관
- IMPACT**
 - 청소년 조직 진단을 통한 성장 방향성 검토
 - 지역사회 청소년 조직과 네트워크 형성

2. 단기자문

홍보가 서툰건 죄가 아니다! **홍보아카데미**

개인 / 교육·자문 / 홍보

NPO가 당연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홍보죠. 홍보전략 수립이 불투명하거나, 언론보도, SNS 기술 부족으로 적극적 홍보를 못하고 있는 NPO를 위해 배울 수 있는 홍보의 개념과 제안서 작성법, 보도자료 작성 및 SNS 마케팅 노하우를 1Day 교육과 자문으로 공유합니다



CLASS 1

WHEN 2017. 8. 31

PROBONO (주)KPR

NPO 18개 NPO

SUBJECT

- 홍보의 개념과 기술
- 제안서 잘쓰기

CLASS 2

WHEN 2017. 9. 28

PROBONO 서울시복지재단

NPO 23개 NPO

SUBJECT

- 언론보도의 개념과 기술
- 보도자료 작성법
-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홍보 마케팅 노하우

3. 그룹자문

끝까지 책임진다! **프로보노 A/S데이**

개인 / 자문

지난 3년간 프로보노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더라도 일당백의 현장에서 자문 내용을 적용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 NPO를 위해 준비한 그룹형 자문 A/S데이! 특정 분야에 대해 궁금한 다 NPO와 1명의 전문가가 만나 각 기관의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전문가의 사례 해석 및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CASE 1

NPO 17개 NPO

SUBJECT

- 보고싶은 홈페이지 기획
- 번뜩이는 홍보전략
- 센스만점 PPT 스킬
- 위험천만 저작권
- 요목조목 비영리 세무
- 생존을 위한 후원자개발
- 출근을 부르는 인사노무

WHEN 2017. 11. 28

PROBONO 8명의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유정오_LG전자
최진_(주)KPR
김지훈_PT story
박성민_법무법인 태평양
박창수_법무법인 태평양
배은옥, 이원규_(주)공유
손문규_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4. 교육

칼퇴근을 부르는 **PPT와 엑셀 교육**

개인 / 교육 / 컴퓨터활용

NPO에서는 PPT와 엑셀을 사용하여 많은 문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운 적 없는 프로그램 사용에 업무시간은 길어만 집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그동안 나만 몰랐던 PPT와 엑셀의 다양한 편의 기능을 배우며 산적한 업무시간을 단축합니다



CLASS 1

WHEN 2017. 7. 5

PROBONO 김철_해움케이비

NPO 25개 NPO

SUBJECT

- 데이터 속성 및 표기 기능, 환경설정
- 비즈니스 빅데이터의 집계 및 분석

CLASS 2

WHEN 2017. 7. 5

PROBONO 김지훈_PT story

NPO 20개 NPO

SUBJECT

- 전문가의 PPT 기획
- 베스트 프리젠테이션 사례분석
- 모르면 후회하는 파워포인트 기능 퍼레이드

5. 기업 맞춤형

NPO의 비전을 퍼실리테이션 하는 **비전워크숍**

그룹 / 워크숍 / 경영전략

NPO에게 미션과 비전은 활동가들의 열정을 끌어내고 기관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허나 많은 NPO에서 비전이 뚜렷하지 않거나 다시 정립해야 할 때, 공유가 잘 안되거나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을 때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비전워크숍 프로보노를 통해 조직의 미래를 그리며 비전을 이루기 위한 뚜렷한 로드맵을 갖게 됩니다



CASE 1

NPO 11개 NPO & 서울시복지재단

PROBONO (주)인피플컨설팅 & 15개 기업 소속 퍼실리테이터

IMPACT

- NPO 내외부 환경 파악
-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의 가치를 표현하는 미션 확인
- 비전 설정을 위해 가치에 대한 키워드 도출 및 기관의 비전 선정
- 단계별 비전 로드맵을 통한 실행전략 마련

05

프로보노를 돌아보다

- 국내외 프로보노 동향과
한국의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해외 우수 사례
 - 2017 프로보노 센서스
-

한국의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 연구 中

국내외 프로보노 동향과 한국의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제언

‘프로보노’는 1980년대 말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던 무료법을 상담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작되어 현재는 경영, 교육, IT 등 넓은 분야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술을 비영리조직의 역량강화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로보노가 2000년대 초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히 성장한 것에 반해 한국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과 은퇴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프로보노 사업의 동향 | 미국 vs 일본 vs 한국

미국 탭룻재단 미국의 프로보노 활성화를 주도하는 탭룻재단은 미국 최대의 비영리컨설팅기관으로 2001년 창립되어 프로보노를 통해 소셜섹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프로보노가 급증하게 된 것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탭룻재단의 초대 대표인 아론허스트가 「A Billion plus Change」라는 국가적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목적은 대량 발생한 고급 실업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그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비영리조직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캠페인은 미국 사회를 위해 10억 달러의 가치를 기여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150개 이상의 대기업, 정부, NPO 리더들이 백악관에서 「The Summit on Corporate Volunteerism」을 가졌다. 이 캠페인은 미국 시민들에게 프로보노란 전문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봉사활동을 총칭하는 뜻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탭룻재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하여 뉴욕, 시카고, LA, 워싱턴 D.C 등 5개 대도시로 확산되었다. 주요 서비스는 4개 분야(마케팅, 인사, 경영전략과 재무, IT)로 총 3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0개 이상의 비영리조직을 지원하였다. 주된 프로그램은 장기 프로젝트(6~9개월)로 비영리조직 역량강화를 돕는다. 단기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시작된 ‘ScopeAthon’이며, Scope와 Marathon의 합성어이다. 특정 기업이 후원하고 후원한 기업의 경영진들이 반나절에 걸쳐 비영리조직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탭룻재단은 2013년부터 글로벌 프로보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 세계 프로보노 운동을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웹사이트 probonoweek.org 구축과 ‘프로보노Week’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 내 기업의 자원봉사는 부가가치가 큰 프로보노라는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탭룻재단과 같은 프로보노 중간지원조직에

정부는 힘을 실어주고 기업은 후원하며 비영리조직의 역량강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역동적인 프로보노 활동은 더딘 경제 성장과 침체된 사회로 고민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프로보노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일본 서비스그랜트 일본 프로보노는 2005년 대표적인 프로보노 기관인 ‘서비스그랜트(Service Grant)’가 설립되면서 시작했으며 탭룻재단의 영향을 받았다. 서비스그랜트 설립 초기에는 기업의 인적자원이나 후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매킨지, 보스턴컨설팅, 베인앤컴퍼니와 같은 일본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 까지 서비스그랜트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은 연평균 24% 성장하고, 36건의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누적 430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프로보노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단체, 영상전문가, IT전문가, 건축설계 분야 등 참여자들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주로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중간지원조직 한국은 2009년 9월 SK프로보노 봉사단이 창단되었고, 6월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며 로펌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프로보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인 1995년 ‘삼성법률봉사단’, 2006년 우리은행의 ‘중소기업과 비영리조직 무료 컨설팅서비스’ 등의 프로보노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몇몇 사례를 보면 2010년 Kamco희망프로보노봉사단, 한국수출입은행 프로보노 봉사단,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프로보노 재능기부단, 삼정KPMG 프로보노 봉사단, 2015년 LG디스플레이 프로보노 봉사단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프로보노 중간지원조직은 2007년 세스넷(SESNet,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 서울시NPO지원센터가, 2015년 (사)한국자원봉사문화가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프로보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일본에 비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이 취약하고 전문가와 비영리조직과의 연계·매칭이 순조롭지 않아 프로보노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한국자원봉사문화 프로보노 사업 <쾌지나칭칭 프로젝트>

(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2015-2017년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전문가와 NPO를 매칭하는 프로보노 「쾌지나칭칭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시민의 전문적 재능에 기반한 프로보노 활동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전문기술과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의 새로운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로, 프로보노 환경을 구축하였다. 프로보노 사업팀을 신설하고, 2015년 행정안전부-기업-NPO-중간지원조직(10개 유관기관)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프로보노 사업의 꽃인 전문 코디네이터를 육성하여 매칭 사례별 진척과 품질 관리를 진행하였다

둘째로, 운영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NPO 및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대상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NPO는 프로보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5%에 달했으며, 필요분야는 홍보, 재무, 모금, 조직운영·IT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영리조직과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를 연계, 매칭, 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총 169곳의 NPO와 98명의 프로보노 자원봉사자가

총 134개 매칭에 참여하며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도록 하였다(2016년 기준). 특히, 프로보노 활동 이후 자원봉사자의 재참여의사는 93.4%, 자기개발과 성장감은 18배나 높게 나타났다

셋째로, 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비영리조직의 4개 중점 선호영역과 12개 세부분야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장기자문과 단기자문, 교육, 기업특화형 등을 연계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 영역 | 세부분야(12) |
|----|----------------------------|
| 경영 | 경영전략, 조직운영, 법률, 사업기획 |
| 홍보 | 기관홍보전략, 사업마케팅전략, 모금전략, 디자인 |
| 재무 | 재무전략, 회계전략 |
| IT | 컴퓨터활용법, 홈페이지구축전략 |

넷째로, 프로보노를 확산하였다. 프로보노에 대한 이해가 낮은 한국 시민사회에 프로보노 동향, 성공사례를 담은 사례발표회와 토크쇼 등을 실시하고, 기업CSR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집과 가이드북을 배포하였다. 이는 잠재적인 프로보노 참여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프로보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프로보노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다. NPO의 요청이 집중되나 자원이 부족한 모금, IT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그룹에 대한 자원 개발이 미진하고, 베이비부머(은퇴자)나 기업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참여 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특성에 맞춤형 된 활동 모델도 부족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프로보노 사업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예산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미흡하다. 정부와 기업의 자원 유입이 촉구되는 지점이다

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프로보노 참여 캠페인 등 사회적 붐 조성

한국의 프로보노가 성장이 더딘 이유는 프로보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 부족은 물론 동기부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적 캠페인 A Billion Plus Change 처럼 프로보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잠재적 프로보노 공급자와 수요자를 자원봉사 현장으로 불러내는 시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프로보노 정상회의”와 같은 대형 국가적 행사를 통해 사회적 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프로보노 네트워크 포럼 등 인프라 체계 구축

SK(사회적기업 대상)와 삼성(경영자문) 등은 프로보노를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으로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 법률 관련 프로보노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재)동천이 2016년 ‘NPO법센터’를 설립했고, 퍼실리테이션 기업인 (주)인피플컨설팅은 NPO를 돕는 프로보노 코디네이터 담당자를 통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스넷, 서울시NPO지원센터, (사)한국자원봉사문화 등 민간 프로보노 중간지원조직들은 프로보노가 자원봉사의 한 축으로서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탬플재단은 매년 프로보노 컨퍼런스를 운영하여 관련 기업과 중간지원조직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프로보노 네트워크 포럼 등을 만들어 상호 교류하고 콘텐츠를 형성하는 등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형 프로보노 참여 모델 개발을 통한 참여 기반 확충

국내의 프로보노 활동 모델은 장기자문(1개월 이상), 단기자문 (1day),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유형이 단조로워 참여 기반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의 경우, 기업이 장단기 일정기간 NPO에 직원을 파견하는 활동, 일정 규모의 인적자원을 투입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라톤 활동 등 다양한 활동 유형을 갖추고 있기에, 자원봉사자의 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활동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참여 확대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더하여, 프로보노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룹인 기업의 임직원 및 은퇴자층을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활동 모델을 만든다면 프로보노 참여층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적합한 가치 환산 지표 마련으로 사회적 성과 부여

프로보노의 가치측정은 자원봉사자와 NPO의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차기 프로젝트의 성과를 개선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등 프로보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이에 미국과 한국의 지난 2016년 중간지원조직별 사업 현황을 가치측정 지표로 환산한 결과, (사)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활동한 프로보노 봉사자 수는 49명이며, 활동시간은 약 1천 시간으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가치 총액은 아래와 같다

2016년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49명, 약 1천 활동시간, 경제적 가치 1억 7,286만원

(사)한국자원봉사문화의 프로보노 가치 총액은 1억7,286만원으로, 미국 탬플재단의 가치 총액과 약 68배의 차이를 보이며 한국의 프로보노 활성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계량화 방법은 미국에서 개발한 가치측정지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프로보노 활동과 비교하여 가치환산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향후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가치환산 지표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이를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프로보노 프로젝트 Case별 금전적 가치 | | |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1시간당 분야별 노동제공가치 (A, B) | | |
|------------------------|-------------------|----------|-----------------------------------|----------------------|-------------------|
| 분 야 | 제공하는 프로젝트 내용 | 금전 환산값 | 분류 | 분 야 | 일 반 중 급 상 급 |
| 인 사 | 인재 매니지먼트 전략 구축 | \$55,000 | A | 마케팅, 광고, PR | \$80 \$100 \$150 |
|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 제언 | \$55,000 | | 회계, 경리 | \$90 \$135 \$200 |
| | 인사 전략의 구축 | \$55,000 | | 건축, 엔지니어링 | \$75 \$100 \$145 |
| | 이사의 확보 | \$55,000 | | 전략컨설팅, 조직컨설팅, 인사, IT | \$100 \$150 \$225 |
| 경 영 | 경영전략 기초 자료 | \$70,000 | B | 법률, 의료 | \$200 \$250 \$320 |
| | 성과 평가 지표 | \$70,000 | | 특정요율 없을시 시간당 평균값 적용 | \$120 |
| | 경쟁자 · 파트너 분석 | \$70,000 | | | |
| | 재무 분석 | \$70,000 | | | |
| 마 케 팅 | 주요 메시지와 브랜드 전략 | \$55,000 | | | |
| | 비주얼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전략 | \$55,000 | | | |
| | 네이밍과 비주얼 아이덴티티 | \$55,000 | | | |
| | 팸플릿 | \$45,000 | | | |
| | 연차보고서 | \$45,000 | | | |
| | 웹사이트 | \$50,000 | | | |

※ 출처: 미국 탬플재단

The Best Practice

AIG HOSTS SPEED CONSULTING IN NYC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TALENT DRIVES SOCIAL IMPACT

How can today's nonprofits use social media to connect with the people they serve? How can they create brands that appeal to both homeless youth and millionaire donors? How can they reach the right audiences with the right messages at the right times? Those are questions that keep many nonprofit leaders up at night

Fortunately for nine local nonprofits, they don't have to answer these questions alone. As part of AIG's Global Volunteer Month, AIG launched its first-ever Speed Consulting event to provide these organizations with consulting support from some of the top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in the field

If you're wondering what Speed Consulting looks like, imagine speed dating – but with world-class consulting advice instead of awkward small talk. During this event, representatives from the selected nonprofits met with 27 AIG experts ranging from the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to the company's Global Head of Customer Experience. Over the course of three one-hour sessions, they explored strategic questions around branding, marketing, key messages, social media, and digital platforms

In this short amount of time, the support from executives with a global perspective had a clear impact on nonprofit participants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be asked thought-provoking questions about our organization and to think about how we can have a greater impact and do our work more strategically," one nonprofit leader said after the session. "It was also a great way to meet and network with professionals and raise visibility for our organization."

Another nonprofit leader explained that the event was especially valuable for her small organization. "Our staff often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think about these challenges," she said, "so this event gave us time and space to think about and discuss some of the big questions related to our work – and also gave us a fresh perspective."

Nonprofit leaders went home with recommendations for re-branding their organizations, key messages for new audiences, and new social media strategies. But the impact of the event didn't stop there. Most AIG volunteers found that they learned just as much as they shared

"Teaching is the best learning experience," one executive said after the event, "I felt that I was able to provide feedback and advice that I wasn't aware that I had. It was valuable for the nonprofit partners to hear what has and hasn't worked in my previous roles and companies."

Another AIG volunteer highlighted the surprising similarities between the challenges facing nonprofit leaders and the issues he deals with day-to-day. "I really enjoyed hearing about the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ir challenges," he explained. "It's fascinating how similar our issues are in some respects, and it helps me think about new ways to address my daily work."

Ultimately, the AIG Speed Consulting event helped nine nonprofit organizations grow their revenue, reach more New Yorkers, and provide more effective services. At the same time, the event built a bridge between nonprofit leaders and top talent at one of the city's largest companies, laying the groundwork for future partnerships, collaboration, and impact

(출처: Oliver Gould(Advisory Services Consultant, 2017.7.25.)/Taproot Foundation 홈페이지)

해외 우수 사례

뉴욕에서 열린 AIG의 스피드 컨설팅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사회적 영향력 높이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NPO는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을까? 저마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브랜드는 어떻게 하는걸까? 우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많은 NPO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자문에 참석한 NPO들은, 이런 물음에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AIG가 주최한 '글로벌 볼런티어 먼스Global Volunteer Month'의 일환으로 열린 제 1회 '스피드 컨설팅Speed Consulting' 이벤트에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혹시 '스피드 컨설팅'을 잘 모르신다면, '스피드 데이트speed dating'를 생각하면 된다. 다만 스피드 데이트의 어색한 대화 시간이 '스피드 컨설팅'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이번 자문에서는, AIG의 최고 홍보 책임자에서 고객 경험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총 27명의 전문가와 NPO가 만났다. 각각 1시간으로 구성된 세 개의 세션에서 그들은 브랜딩, 마케팅, 핵심 가치, 미디어 활용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략적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전문가들의 자문은 NPO에게 큰 통찰을 안겨줬다

"우리 기관의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들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전략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세션이 끝난 뒤 한 NPO 리더가 전한 소감이다. "우리 기관을 위한 비전을 세울 수 있었고,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NPO 리더는 그녀의 작은 조직을 위해 특히나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직원들은 종종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 부족해요.", 이어서 그녀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관점까지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참 귀한 시간입니다." NPO 참가자들은 기관 리브랜딩과, 새로운 시민을 위한 핵심 가치, 소셜미디어 전략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 자문 행사의 성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부분의 AIG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는 그들이 나눈 만큼 그들 또한 배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르치는 것은 가장 좋은 배움인 것 같아요." 한 경영자가 행사 뒤에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NPO 분들에게는, 제가 직장에서 해낼 수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 또한 아주 의미있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AIG 프로보노 자원봉사자는 NPO들이 직면한 도전과 그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들이 놀라우리만큼 닮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NPO의 이야기와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들었던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이어서 그는, "몇몇 지점에서 그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비슷하다는 건 매우 놀라웠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직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는데 영감을 얻기도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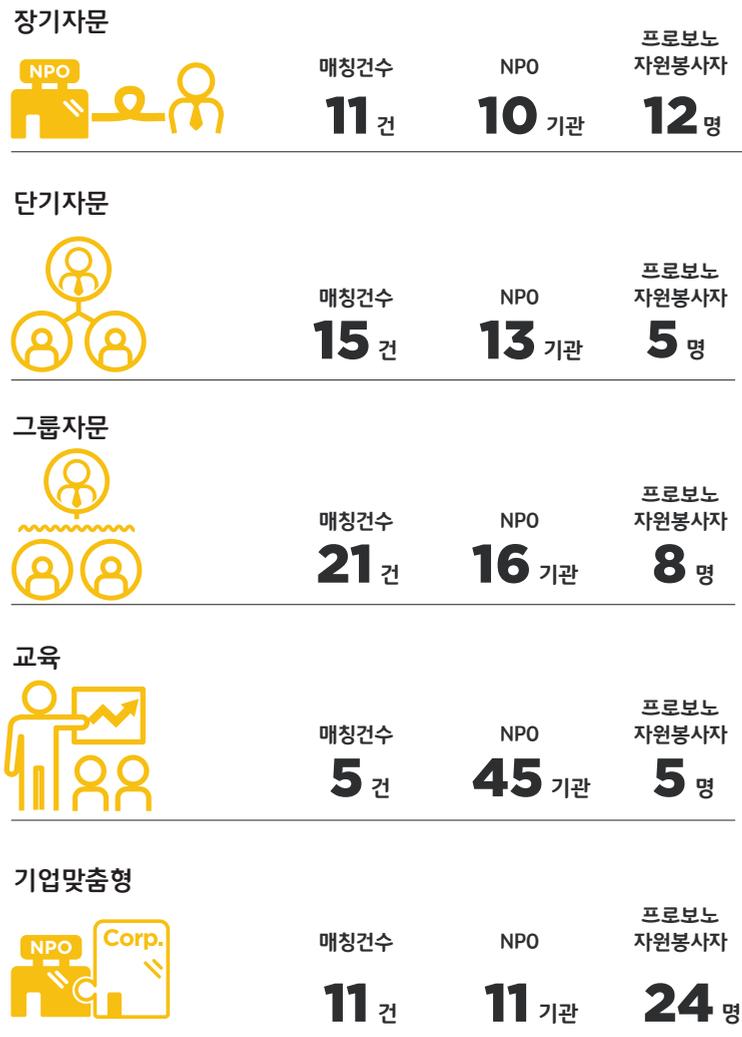
궁극적으로, 'AIG Speed Consulting'은 아홉 곳의 NPO 기관의 역량 강화를 도와, 그들이 더 많은 시민에게 다가가고,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됐을 것이다. 동시에 이번 자문 행사는 NPO와, 뉴욕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AIG의 전문가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미래의 파트너십과 협력, 그들이 빛어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2017 프로보노 센서스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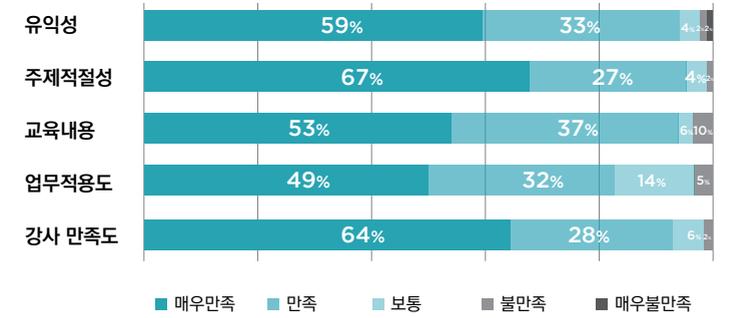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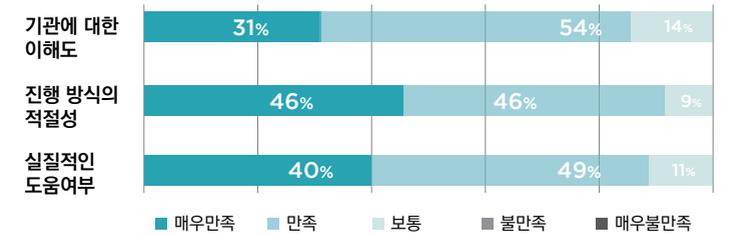
NPO 교육 참가자 만족도

총 81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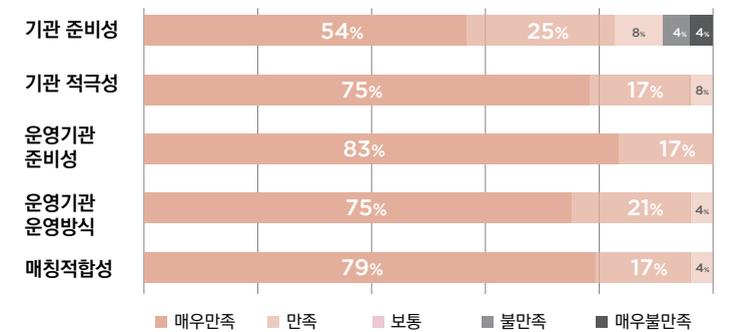
NPO 자문 참가자 만족도

총 35명 응답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만족도

총 24명 응답



06

함께 한 분들

• NPO 및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파트너



함께한 분들

NPO 및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파트너

굿 NPO

총 65 기관

(사)글로벌비전
(사)글로벌호프
(사)로터스월드
(사)비비비코리아
(사)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사)샘복지재단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스파크
(사)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 후원회
(사)에코피스아시아
(사)열린옷장
(사)월드투게더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제이에이코리아
(사)지구촌나눔운동
(사)프렌드아시아
(사)한강학술문화교류네트워크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사)해냄복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
CLC희망학교 금천 캠퍼스
CLC희망학교 부산 캠퍼스
CLC희망학교 용인 캠퍼스
가온누리
구로건강복지센터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다니엘주간보호센터
대전시민아카데미
도깨비방망이 지역아동센터
도안마을신문
독도수호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산돌에빛지역아동센터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환경연합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서초소규모복지시설연대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시립중랑장애인단기보호센터 다운누리
양평군무한돌봄센터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은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
장기려박사기념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
장애인 주간 보호 그룹(강남구 연대)
장애인 주간 보호 그룹(서대문, 마포, 은평 연대)
장애인 주간 보호 그룹(서초구 연대)
조인어스코리아
한국CLC
한국머시업
한국미래연합
한국혈액암협회
함께사는사람들
행복한학부모문화
환경운동연합

굿 프로보노 자원봉사자

총 47 명

강윤희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고형복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김경란 더 좋은 삶 연구소, 메타노이아
김명화 출렁다리마을
김민영 (주)인피플컨설팅
김 욱 (주)오리온
김지훈 PT story
김진아 gs shop
김 철 헤움케어비
김형표 마인드맵에듀
박미경 제니스기술(주)
박상식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박성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소연 서울시복지재단
박준표 Odd-e
박창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배은옥 (주)공유
백외섭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백주은 두산그룹연수원
손문규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손병기 코녕정밀소재
송근창 LG Electronics
신윤석 동서회계법인
안철홍 서울시복지재단

양성연 SK하이닉스
오화영 기아자동차(주)
유정오 LG전자
유지영 서울시복지재단
이왕국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이우형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이원규 (주)공유
이은애 (주)인피플컨설팅
이은현 (주)인피플컨설팅
이중서 더 좋은 삶 연구소, 메타노이아
이현경 분당서울대병원
정예진 한국수자원공사
정유진 신성중학교
정혜선 (주)인피플컨설팅
진혜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차경일 기아자동차(주)
채홍미 (주)인피플컨설팅
천차돌 여행자살롱
최송화 (주)인피플컨설팅
최 진 (주)케이피알앤드어소시에이츠
최하나 (주)케이피알앤드어소시에이츠
최현주 존슨앤존슨
홍순표 (주)인피플컨설팅

굿 기업 · 단체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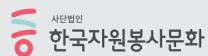
총 8기관

(재)동천 (주)공유 (주)인피플컨설팅 (주)케이피알앤드어소시에이츠
LG전자 더 좋은 삶 연구소, 메타노이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희망설계재능기부연구소

굿 협력기관

총 2기관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운영진  프로보노 사업부 정희선, 윤영미, 이경화, 송승훈, 권병수
코디네이터 강옥자, 김호원, 윤인우, 이소진, 이은승

후원 

자원봉사

『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문화를 만듭니다 』



자원봉사의 가치를
아는 문화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문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민 문화



2017 프로보노 가이드북 NPO로 간 굿프로 이야기

펴낸 곳 (사)한국자원봉사문화
펴낸 이 이순동 이사장
후원 행정안전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3길 14-1 서초빌딩 3층
전화 02-415-6575
팩스 02-415-1603
이메일 volun@vculture.or.kr
홈페이지 www.volunteeringculture.or.kr
디자인 주식회사 위 | 031-948-2485

프로보노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프로보노 하고 싶어요'를 외쳐주세요 :)

